

학력 높을수록 결혼비용 의존크다

부모보조·축의금 큰 비중...‘자립’ 20% 안팎 불과

도시 신혼264가게 조사

도시 신혼부부의 결혼비용은 평균 1천8백만원으로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인 52.6%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비용은 대부분 부모의 도움과 축의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가정대 소비자아동학과 이기춘·조은정 교수팀이 최근 서울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4년 이내의 264가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히 신혼부부의 학력과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축의금 의존도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조달한 경우는 남자 22.9%, 여자 18.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부모·축의금으로 거의 충당했다.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자의 경우 결혼비용 중 부모 부담률이 59.81%, 축의금 비중이 18.43%로, 고졸 이하 학력층 여자의 결혼비용 부모 부담률 31.68%, 축의금 비중 11.89%에 비해 훨씬 높았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졸 이상 학력층은 부모 부담률 50.22%, 축의금 비중 20.58%로, 고졸 이하 학력층의 부모 부담률 28.59%, 축의금 비중 19.1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런 신혼부부들의 결혼경비 의존실태는 신혼 주거공간 마련에서 두드러져, 조사 대상자의 75%가 시대·친정의 보조를 이용했으며, 액수도 1천만원 이상이 45.2%나 됐다.

주거공간 마련의 비용 조달방법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

의존도가 훨씬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결혼식·예단·예물·신혼여행 등 결혼 절차에 필요한 비용 지출이 신혼주거 마련 비용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져 결혼 과소비 일면을 드러내었다. 결혼비용이 신혼주거 마련 비용보다 1~2배 많이 지출된 경우가 30.7%였으며, 2배 이상인 경우도 16.6%나 됐다.

조사를 맡았던 이기춘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부모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결혼비용 융자, 임대주거공급 등의 장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 기자〉



우리나라 도시 신혼부부들은 자신들이 번 돈으로 결혼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극히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